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431>

JCCT 2023-9-53

## 소그룹 협동학습을 통한 대단위 수업의 효율성 연구

#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Large-Scale Classes through Small Group Cooperative Learning

성창환

Chang-Hwan Sung

**요약** 좋은 수업은 수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하나의 체제로서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다.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의 교육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이를 실제로 자신의 전문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필요한 이론을 습득함과 동시에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늘 스스로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위한 대단위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다. 이는 여러 전공 분야에 걸쳐 개설된 대단위 수업을 담당하는 많은 교수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렇게 대단위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강의, 발제 및 조편성, 과제 부과, 조별 발표, 교수의 조별 발표지도, 강의 자료의 게시, 질문과 답변, 조별 발제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 기말보고서 작성, 성적산출방식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연구하였다.

**주요어** : 대단위 강의, 수업의 설계, 협동학습, 조별 발제

**Abstract** In a good class, the elements that make up the class are organically related as a system. The goal of the class is to foster the ability of students to fully understand the educational content of the subject and then apply it to their professional areas. Therefore, for ideal classes, it is necessary to design students to acquire the necessary theories and apply them practically. The question We always ask ourselves during lectures is how to effectively give large-scale lectures for students. This is also the concern of all professors in charge of large-scale lectures opened across various major fields. Now is the time to find ways to effectively give lectures on a large scale. We studied how it is most effective to design and implement various factors such as lectures, presentation and group organization, assignment, group presentation, professor's group presentation guidance, lecture materials posting, questions and answers, group presentation feedback, final report writing, and grade calculation.

**Key words** : Large-scale lectures, Class design, Cooperative learning, Group presentation

\*정회원, 서울장신대학교 신학과 부교수  
접수일: 2023년 7월 31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2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5일

Received: July 31, 2023 / Revised: August 22, 2023

Accepted: Sept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praysung@naver.com

Dept. of Theology, SeoulJangsin Univ, Korea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대학의 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학생들의 발달과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 문화를 조성하기에 힘써야 하며 동시에 교수(teaching)와 교수자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대학에서 교육활동의 핵심은 수업이며 수업의 질은 교육의 질로 이어진다고 본다[1]. 전공필수 과목을 수업하면서 늘 스스로 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수강 학생들을 위한 대단위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전공 분야에 걸쳐 개설된 대단위 수업을 강의하는 모든 교수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교수 1인당 적절한 학생의 숫자를 인문, 사회 분야는 25명 이하로 정해져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4~5배가 넘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교수로서 대단한 과제이다[2]. 물론 수강 학생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다. 교수도 인간이기에 수강생이 많으면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한 많은 학생들의 기대를 채워주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기가 진작되는 장점도 있고 수강생이 많기에 역동적인 상승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단위 강의의 경우 긍정적인 점보다는 부정적인 점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대단위 강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는 대학의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인 것이다.

## II. 연구 배경

본 연구는 대단위 강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적절한 수업의 형태를 마련하기 위해 협동 학습을 통한 조별 발제 형식을 수업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대단위 강의 수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점들이 있다.

첫째, 수강 학생들과의 개별적인 접촉이나 교감이 부족한데, 이는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분량의 수업내용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개별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질의와 응답이 있어야 그들이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병행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학생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조사, 연구하게 한 뒤 이를 발표할 기회와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렇게 대단위 강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강의, 발제 및 조편성 및 운영, 과제 부과, 조별 발제, 조별 발제 지도, 강의 자료의 게시, 질문과 답변, 조별 발제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 기말보고서 작성, 성적산출방식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연구하게 되었다.

그동안 나름대로 가장 효과적인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되는 방식을 설계하여 적용한 뒤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 개선해 왔던 연구자로서는 이 연구가 대단위 강의 수업에서 적절한 수업 방법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III. 연구 방법

### 1. 수업 방식의 설계: 강의와 조별 발제의 병행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의 교육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이를 실제로 자신의 전문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3]. 따라서 이상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필요한 이론을 습득함과 동시에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적이고 필수적인 수업 방식 중의 하나는 강의 교수가 여러 가지 학습 내용을 강의한 뒤 학생들이 그 배운 바를 실제로 적합한 교육 현장에 적용해 본 경험과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수의 강의를 피동적으로 수강하는 방식에 익숙한 학생들은 아직도 교수가 모든 것을 다 진행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예로 1차 설문 결과에서는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교수가 모든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선호한 응답자의 수가 병행방식을 선호한 응답자의 수보다 더 많았다(49%). 이는 교수가 모든 중요한 내용을 강의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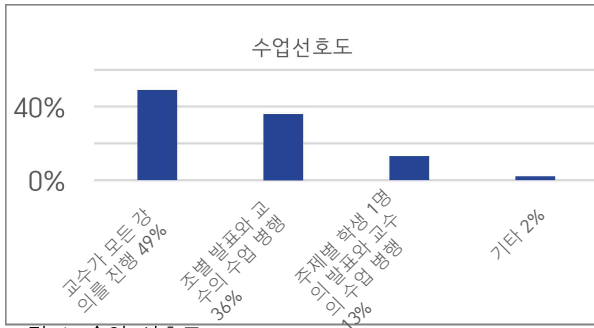


그림 1. 수업 선호도  
 Figure 1. Class preference

그러나 그림 2와 같이 교수의 강의와 조별 발표를 병행하는 수업 방식을 선호한 응답자의 수도 많았고(36%), 더욱이 발제에 긍정적이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특히 그림 3과 같이 ‘교수의 강의’와 ‘주제별로 학생 1명의 발표’를 선호한 학생들은 특별한 발제 의욕을 가진 학생임을 나타내기에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수업의 설계를 강의와 더불어 협동 학습에 의한 조별 발표를 실제로 수업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뒤 진행하였고, 그림 4와 같이 이러한 학생 참여 방식의 수업이 매우 유익하다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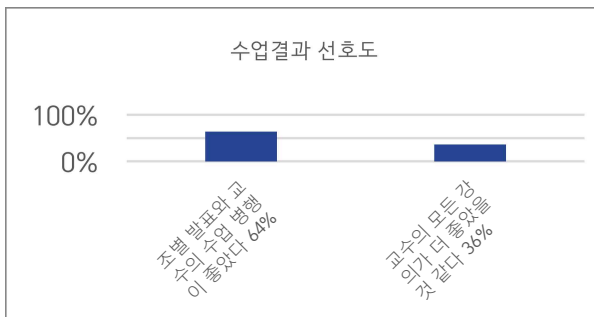


그림 2. 수업 결과 선호도  
 Figure 2. Preference for class results

협동 학습은 학생들 간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과 조원과의 협력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수업 방법이다[4]. 학생들은 협동 학습을 통해 협동적 팀 프로젝트, 동료 간의 상호작용,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배우고 익히며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성취감을 갖게 된다[5].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어 교육적 접근으로 협동 학습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방법이 된다. 협동 학습에 의한 발제를 병행하는 방식의 수업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6].

첫째, 교수가 학생들이 발제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수업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알고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그 학습효과가 클 것은 당연하다. 물론 학기 중간이나 학기 말까지 제출하거나 부과한 보고서나 시험을 통해 그들의 이해 정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중간 중간에 학생들의 이해정도를 확인하여 보완 및 바로잡는 방법에 비하면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적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론 지식을 습득한 뒤 가능한 빠른 시간 이내에 배운 바를 실제로 활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에 유익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론수업과 발제를 병행하는 이론 강의-적용 실습 학습 방법을 설계하여 실행한 것이다.

둘째, 학생이 피동적인 태도로 강의만을 단순히 학습하는 정도의 노력만으로는 교수가 목적하는 이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즉, 학습하기 전에 교수가 수업 계획서에 정해 준 독서 분량을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 다음에 강의를 듣거나 수업 이후에 강의내용을 바로 이해하려는 자세로 천천히 읽으며 이해하고 복습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생들은 여러 과목을 수강해야 하기에 시간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이 발제 내용과 기말보고서와 기말고사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런 방식의 수업 방법에 대해 학기 초에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실시하였으며, 학기 말에 다시 이 수업 방법의 타당성에 동의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3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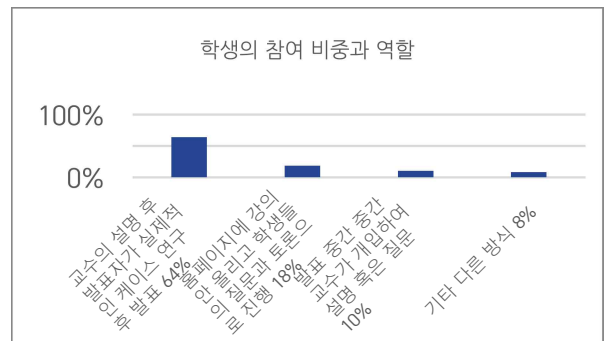


그림 3. 학생의 참여 비중과 역할  
 Figure 3. Percentage and role of student particip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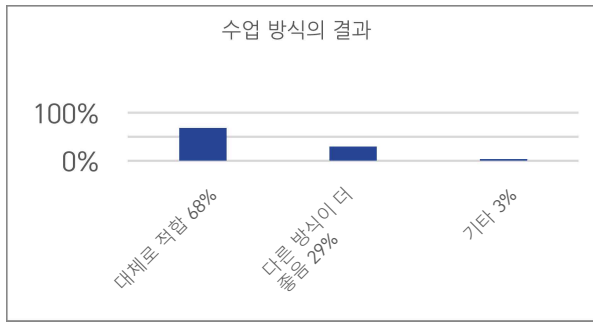


그림 4. 수업 방식의 결과  
Figure 4. Consequences of the teaching style

## 2. 발제의 진행

협동 학습에 의한 수업을 목적으로 설계한 수업에서는 적절한 조별 발제 방식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강의 교수와 발제 조원들의 충분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 준비를 해 나가야 좋은 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학생 상호간의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하다. 대학에서 수업과 수업 외 활동, 비공식적 활동에서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커질수록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7].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 본 선행연구들은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은 학생의 인지적 발달, 학업 성취, 대학 만족도, 진로 선택 등과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한다[8]. 발제 학생들은 그들이 발표할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교수는 강의하는 내용이 담긴 교재와 관련된 내용과 관계된 자료들을 발제 조에게 미리 제공하여 발제 몇 주 전부터 학생들이 이를 이해하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런 시간이 충분할수록 발제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발제 조는 자신들이 발표할 내용에 관한 이론에 대한 강의를 한 주전에 듣고 발표하는 것이 보다 확신을 갖고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의 후 한 주일 뒤에 발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대에서 교수는 과거의 가르치는 역할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의미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 조력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수의 가르치는 역할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수에 의한 이론 설명과 가르침(A,B,C 등으로 표시)에 끝 이어지는 발제(p)를 원한다. 즉, 강의 첫 주에는 A+Ap,

둘째 주에는 B+Bp, 셋째 주에는 C+Cp와 같은 진행을 원한다. 그러나 교수 강의 후 한 주 뒤에 하는 발제가 현실적인 차선책이다. 즉, 학생들은 A라는 내용에 대해 강의를 듣고 한 주가 지난 뒤에 Ap라는 학생의 발제를 듣게 된다. 따라서 강의 첫 주에는 A+o, 둘째 주에는 B+Ap, 셋째 주에는 C+Bp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제 조의 발제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이해한 정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이해함에 큰 도움이 되며 이 점이 협동 학습에 의한 발제 방식 수업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이다. 이는 학습을 위한 동기유발과 긴장 유발이라는 점에서도 유익하다. 이해가 빠른 학생들은 자신도 잘 이해한 뒤 발제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이해 정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라도 적어도 동료들에게 뒤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발제는 시간 배분에 있어서 어떤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3대 1 정도의 비율이 바람직하였다. 그래서 이 비율을 기본으로 한 뒤 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학기 초에 물었고, 이 비율로 진행한 결과는 대다수 학생들이 이 비율에 찬성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5와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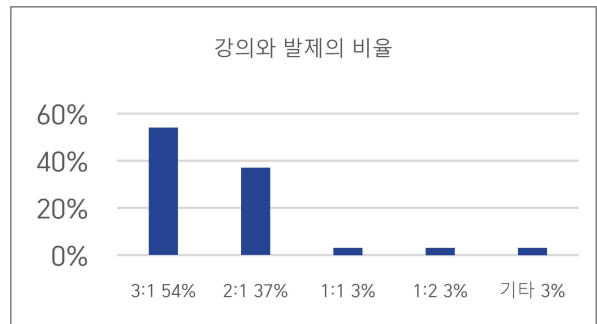


그림 5. 강의와 발제의 비율  
Figure 5. Ratio of lectures to present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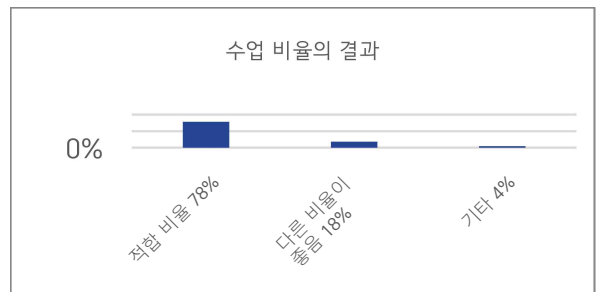


그림 6. 수업 비율의 결과  
Figure 6. Result of class rates

### 3. 발제 조 편성

발제 조 편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필요한 숫자만큼의 조원을 출석부 순서대로 편성하는 방식 또는 원하는 수강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편성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전자는 수강 학생들끼리 새롭게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이, 후자는 친한 학생들끼리만 편성함으로 인해 소외되는 수강 학생이 생기고, 동급생 간의 교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적절히 결합한 방식, 즉, 교수가 성별 학년을 모두 고려하여 배정하는 방법인데 여학생을 여러 조에 골고루 배정하고 학년이 다른 수강 학생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학생들의 수준도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골고루 섞이도록 편성해 수준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잘 모르는 조원들과 함께 활동해야 하기에 창조적인 긴장감이 형성되는 긍정적인 점도 있다. 그림 7과 같이 이렇게 정해진 발제 조 편성에 대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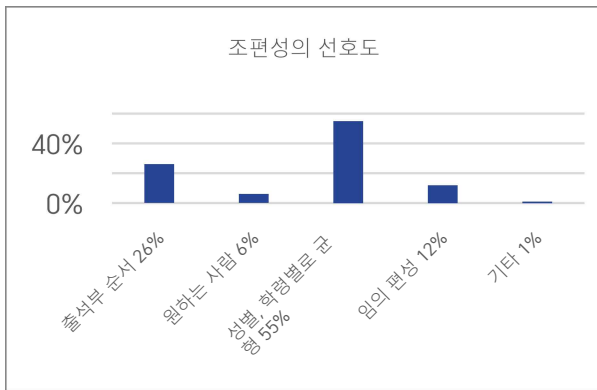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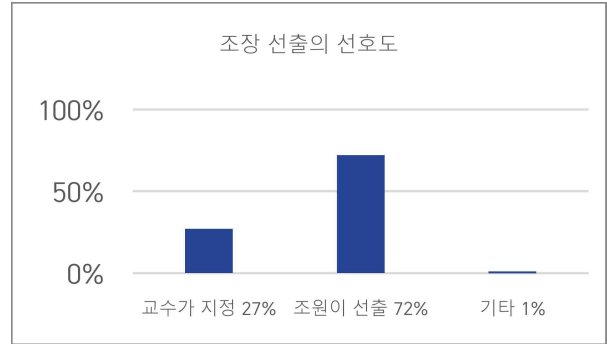


그림 7. 조편성의 선호도  
 Figure 7. Preference for grouping

조장의 선정도 교수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방식과 조원들이 정하는 방식, 둘 다 가능하다. 조원들에게 위임하면 자신들이 선택했기에 조장의 인도를 받겠다는 마음에서 보다 협조하게 된다. 그림 8과 같이 조사 결과는 그러한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림 8. 조장 선출의 선호도  
 Figure 8. Preference for election of a team leader



발제에 따른 각 조의 점수 배점에 있어 각 조장들에게 추가 점수를 주느냐 하는 것도 고려할 점이다. 이렇게 할 경우의 장점은 조장이 상대적으로 수고를 더하게 되기 때문에 조장의 보다 적극적인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조장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조원들의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단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사실 조장을 맡으면 교수와 자주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기대를 촉발시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교수로서는 개별 학생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장을 지정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발표점수는 조원들에게 똑같이 부과되며 조장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점수를 더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여 조원들 간의 협조를 통한 상승작용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발제의 발표자도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원 중에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발표를 잘 할 수 있는 조원을 선정할 것을 각 조에게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장과 발표자는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최상의 발제를 위해서 최상의 발제 내용을 만들고 조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발제를 위해 부담을 나눠질 때 최상의 발제를 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그림 9와 같이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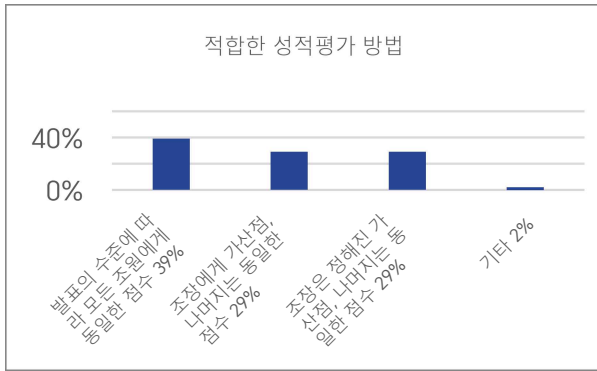


그림 9. 적합한 성적 평가 방법  
Figure 9. Suitable method of evaluating grades

조별 발제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조원들의 참여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발제점수를 받는 소위 무임승차를 하는 조원들이 있으며 이들이 열심히 하는 조원과 똑같은 점수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도 똑 같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따라서 조장들에게 발제를 위한 노력에 참여했던 조원들의 이름만 보고서에 올리게 하거나 소위 묻어가는 조원들의 이름을 보고하게 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조원들 간의 관계가 매우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장이 최대한 권유하고 설득하는 선에서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적을 구성하는 이외의 요소들인 기말시험이나 기말보고서를 엄밀히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4. 조별 발제를 위한 세부 사항

교수가 아무리 완벽한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마치 이론과 실체가 모두 필요하다는 주장과 같다. 실제로 발제 조를 편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면 좋다.

1) 학생들을 발제가 필요한 강의 회수만큼의 발제 조로 편성한다. 보통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되며 이 중 13회 정도 강의를 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이 총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조원 수도 달라지나 대개 7~8명을 한 조로 편성한다. 이들은 최선의 발제를 위해 자주 만나 협동적으로 작업한다. 학생들은 예외 없이 모두 이에 참여하여야만 발제 점수를 받게 된다.

2) 조장을 중심으로 조원들끼리 서로 긴밀히 연락

하는 체계를 만든다. 교수와 조장과의 연락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e-mail과 다양한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긴밀히 연락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LMS 강의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3) 각 발제 조는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발제할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발제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를 확보한 뒤 교수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발제의 틀을 세운 뒤 내용을 확정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3회 이상의 만남이 필요하다. 이렇게 긴밀하게 추진하는 협동 학습의 방법이 아니면 효과적인 소통이 될 수 없으며 발제 내용의 수준을 보장할 수 없다.

4) 조별 발제 결과는 성적에 반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준 높은 내용을 발표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된다. 발제점수는 전체 성적 20% 내외를 차지한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교수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5) 발제점수는 교수가 정하며 발제가 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상, 중, 하로 나누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로 발제점수가 총 20점이면 5점 정도의 간격을 들 수 있다. 상(20점), 중(15점), 하(10점)이다.

6) 발제 일을 미리 정해 놓는다. 최소 2일 전까지 발제 최종안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 수정 후 발표하게 한다. 물론 그보다 일찍 하는 것이 좋고 빠를수록 내용이 충실해질 수 있다.

#### 5. 강의 자료의 게시

교수(teaching)라는 개념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교수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방법이나 기술을 포괄하며 수업의 전 과정에서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일체의 행동이다[10]. 교수의 수행 능력은 강의의 핵심이며, 학생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11]. 대단위 수업에서 강의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수업을 하기 전에 강의안을 수강생들에게 게시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를 강의 일주 전에 배부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읽고 이해한 뒤 수업에 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학생은 자신의 컴퓨터로 내려받은 강의안을 보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자기 파일에 추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성실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습할 부분을 예습하고 오

기 때문에 수업의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는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즉, 예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수업내용을 소지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인해 교수가 미리 읽어보라고 지칭해 준 부분까지도 읽지도 않고 수업에 임하는 나태한 태도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재의 관련된 부분이나 부교재는 더더욱 읽지 않을 가능성이 기 때문에 더욱 수업에 열의를 갖지 않게 된다. 실제로 대다수 학생들이 강의안을 수업 전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학생들이 지정된 부분을 읽고 질문도 만들어 본 뒤에 강의를 듣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업을 진행한 뒤에 강의안을 올려주어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모든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교수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내리는 것이 좋다.

#### 6. 수업 교재의 선정과 활용

수업 교재는 수업의 질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교수는 수업 교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재 한권은 그 내용 전체를 읽어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도 압도적으로 이를 선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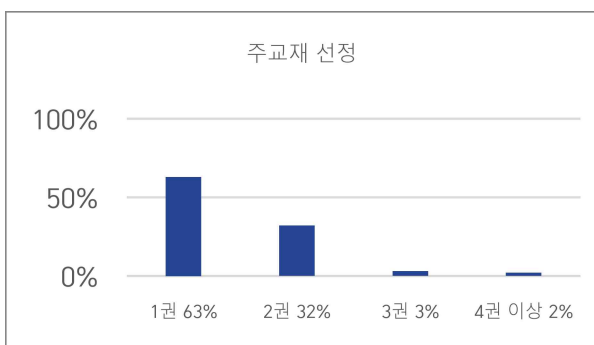


그림 10. 주 교재 선정  
 Figure 10. Selecting the main textbook

대단위 강의 수업일수록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수업계획서에 기록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교재를 선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학문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내용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며 개괄적인 지식에서 시작하지만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도록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업 주제와 관련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실제로는 5~10권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수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의 설문 결과도 이와 일치한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절한 권수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난이도에 따라 먼저 쉬운 내용을 읽고 점차로 어려운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수업계획서에 독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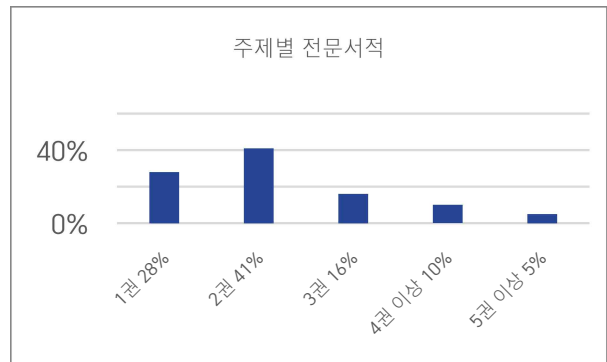


그림 11. 주제별 전문서적  
 Figure 11. Specialized book by subject matter

#### 7. 질문과 답변의 효과 분석

지금까지 교육의 현장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질문과 답변은 매우 중요한 교육 방법으로 강조되어왔다[12]. 특히 학습자가 생성하는 질문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지식 구성, 적용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학습자의 주제적인 사고와 학습을 추구하는 대학 교육에서 더욱 의미있는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13]. 질문 활성화 전략을 수용한 수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하나는 학습자 질문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강의 중심 수업의 틀은 유지하면서 학습자의 질문을 활성화하는 것이다[14]. 대학에서 강의 중심 비율이 높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두 번째 유형이 교수자에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식될 수 있다[15]. 특히 대단위 강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질문하고 교수가 이에 답하는 체계를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모든 학생들이 질문하고, 질문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수업 후 일주일 내에 각 조별로 수업내용이나 교재를 읽으면서 갖게 된 질문들을 모아서 제출하게 한다. 이 경우 교수는 이에 대해 수업 시간이나 LMS 강의실의 질

의, 응답란에 답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LMS 강의실의 질문란에 질문을 올릴 수 있으며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답변해 준다.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은 이런 방식의 진행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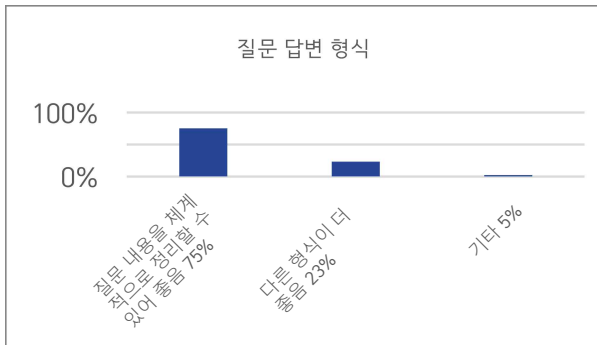


그림 12 질문 답변 형식  
Figure 12. Question and answering format

### 8. 학생의 기말 보고서 제출

대단위 강의 수업일수록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한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이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파일 제출이나 종이 보고서 제출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두 경우 모두 읽고 돌려줄 수 있으나 교수는 학생 숫자만큼의 보고서를 읽고 돌려주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시간을 들여 부지런히 읽어야 하기에 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교수는 가능한 보고서에 좋은 점과 고쳐야 할 점을 모두 언급하고 표시해서 돌려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보고서 작성 요령을 가르치고 공지해서 그 부분에 맞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돌려주는 방법은 파일인 경우에는 읽은 뒤 ‘돌려보내기’(리턴)를 하면 되기에 매우 쉬우나 종이 보고서는 돌려줄 시점을 찾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기말에 제출한 경우, 방학 중에 돌려주려면 일일이 연락하거나 또는 일정 장소에 두고 학생들에게 찾아가도록 지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평가 표시를 잘 해서 돌려주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교수들이 보고서를 읽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잘 된다면 학생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보고서의 길이는 학기 초의 설문 조사에서는 그림 13처럼

A4 5매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제출 회수는 학기 초에 조사에서 학생들이 희망한 대로 1회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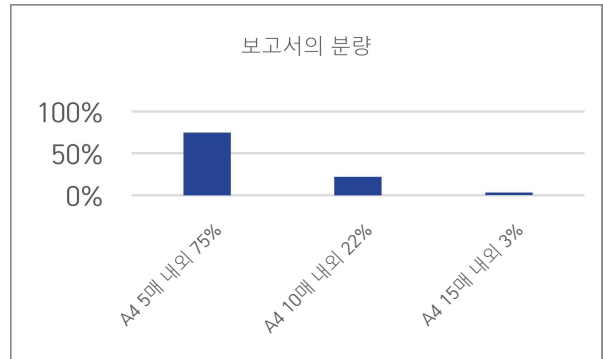


그림 13. 보고서의 분량  
Figure 13. Volume of a report

보고서를 학생이 제출하기 전에 강의 교수의 보고서 평가 기준을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이는 교수가 보고서를 어떤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를 알려줌으로써 그 측면에 맞게 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말보고서 평가 기준표를 게시한 뒤 학생들이 이를 보고서 맨 뒤에 붙여서 제출하면 교수는 각 항목에 해당 점수를 표시하여 파일로 돌려줄 수 있게 된다. 이런 방법을 통해 제출 학생은 자신이 어떤 부분이 우수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게 된다. 보고서의 평가 내용은 표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다음과 같다.

**1. 보고서의 체계성:** 보고서의 적절한 체계, 즉 표지(제목, 지도교수, 제출자, 제출일), 각주 달기, 목차제시, 쪽 번호 매기기, 강조할 부분 밑줄 치기, 필요한 표시를 하였는지를 살핀다.

**2. 보고서의 정직성:**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의 주장을 구분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글일 경우 각주를 정확히 달았는가를 살핀다.

**3. 보고서의 독창성:** 자신이 이끌어 가는 글인가? 다른 사람의 글을 단순히 옮겨다 놓고 있으면서 자기의 글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가를 살핀다.

**4. 보고서 주제의 일관성:** 보고서 제목과 일관된 주제와 제시한 목차에 따라 글을 쓰는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학자의 글을 나열하는가를 살핀다.

**5. 보고서 내용의 논리성:** 자기의 주장을 펼칠 때 그 옳음을 강조하기 위한 논리적, 문헌적인 근거를 제



시하는가? 아니면 근거 없이 단순히 자기주장만이 옳다고 여기는가를 살핀다.

**6. 보고서 작성 시의 학문적인 사고:** 보고서 주제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보고서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대충 기록한 글인가를 살핀다.

**7. 보고서의 보편성:** 주제와 관련된 문헌과 내용이 되도록 많이 읽고 이해한 후에 쓰는 글인가? 이미 잘 알려진 책들의 내용을 단순 반복하고 있는가를 살핀다.

	체계성	정직성	독창성	일관성	논리성	사고성	보편성
수준 이하	1	1	1	1	1	1	1
보통 이하	2	2	2	2	2	2	2
보통	3	3	3	3	3	3	3
우수	4	4	4	4	4	4	4
매우 우수	5	5	5	5	5	5	5

표 1. 보고서 평가기준표

Table 1. Report evaluation criteria table

### 9. 이전 학기 우수 보고서 게시

다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당 과목을 처음 수강하기 때문에 학기 중간이나 학기 말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다. 또 다른 학생이 어떻게 보고서를 쓰는 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을 개선할 좋은 기회를 찾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년에 동일한 과목에 대해서 작성한 학생들의 보고서 가운데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보고서 몇 개를 전체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주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보고 이를 시도하였다. 학기 초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학기 말의 조사에서는 그림 9와 같이 더욱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교수가 선호하는 이상적인 보고서의 체계적인 구성과 내용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며 배우게 된다. 연구자는 이 방식이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게시할 때는 참고할 만한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게시하는 보고서의 개수는 2~5개가 적당한 데 그 이상의 경우 혼란스러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

고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지만 이는 당사자가 자랑스러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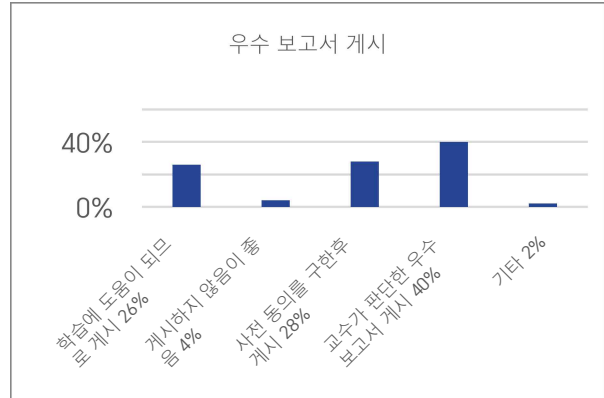


그림 14. 우수 보고서 게시

Figure 14. Publishing outstanding reports

### 10. e 강의실(LMS)사용의 효용성

e 강의실은 대규모 강의의 수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한 명의 강의 교수와 100명 가까운 학생들 간의 소통이 물리적인 강의실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업과 관련된 공지 사항을 수시로 알려 확인하게 할 수 있고, 강의 교수와 학생이 강의안이나 조별 발표 자료, 기말과제 등의 수업자료 게시 및 제출에 대한 필요 사항을 알릴 수 있는 소통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수의 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수강 학생들은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강의실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그 효용성을 학기 말 결과에서 매우 만족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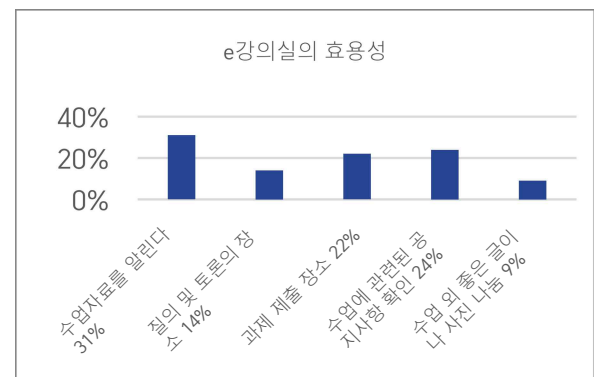


그림 15. e 강의실의 효용성

Figure 15. Utility of e classroom

#### IV. 연구 결과

대학에서 전공필수 과목을 수업하면서 늘 스스로 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위한 대단위 강의 수업을 효율성있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는 여러 대학에서 여러 전공 분야에 걸쳐 개설된 대단위 수업을 강의하는 많은 교수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우리는 소그룹 협동 학습을 통한 조별 발제 형식을 수업의 방향으로 대단위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서 총 15개 항목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설문 결과에서는 교수가 모든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선호한 응답자의 수가 병행방식을 선호한 응답자의 수보다 더 많았다. 이는 교수가 모든 중요한 내용을 강의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 익숙하기에 이를 여전히 그리고 매우 선호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수의 강의와 조별 발제를 병행하는 협동 학습 방식을 선호한 응답자의 수도 많으며, 더욱이 이런 방식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특히 '교수의 수업'과 '주제별로 학생 1명의 발표'를 선호한 학생들은 발제 의욕을 가진 학생임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수업의 설계를 조별 협동 학습에 의한 발제를 통해 실제로 적용하기로 정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학생 참여 방식의 수업이 학습에 매우 유익하다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강의의 시간 배분은 강의와 발제의 비율이 3:1 정도가 좋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둘째, 협동 학습에 의한 발제 방식의 수업을 위해서는 교수에 의한 일방적인 형식의 강의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교수와 발제하는 조원들 및 조장이 자주 만나 긴밀히 대화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한 뒤 잘 준비하여 발제하게 함으로써 수업의 내용을 실제로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발제 조 편성 및 운영의 경우, 학생 간의 친밀도, 학생의 지적 능력의 차이, 참여 태도의 차이로 인해 이상적으로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학년과 남녀 학생 비율을 고려한 임의 배정의 방식을 통해 개인적인 성향을 극복하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조원들은 자신들이 조장을 선출한 뒤 협동 학습에 의한 공동적인 노력으로 최선의 평가

를 받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또한 e 강의실(LMS)을 통해 대단위 강의 수업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단위 강의 수업을 위해서는 이런 방식의 수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넷째, 그 외에도 협동 학습에 의한 발제를 강조하는 수업을 위해서는 강의와 관계된 여러 요소들을 이에 맞게 조정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로 수업 교재의 선정에 있어 학생들이 시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급적 하나의 주 교재와 적은 수의 부교재를 제시할 필요는 있지만, 학문 특성상 여러 교재들을 부분 부분을 읽어야 하는 점을 계속해서 납득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학생들의 기말보고서 작성을 돕기 위해 예년에 다른 학생이 제출했던 우수한 보고서를 게시하여 참고하게 하고, 보고서의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주 좋은 교육적 결과를 가져옴을 확인하였다.

#### V. 결론

S 대학교 학부의 필수과목인 교회교육방법론 수업은 보통 70명 이상의 학생이 수강하는 대단위 수업이다. 이 수업에서는 교회교육을 실천하는 분야에 꼭 필요한 78가지의 방법론들을 학습하게 된다. 문제는 학생들이 단순히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 소개받고 최대한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그 실제적인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을 학습하는 방법론의 수만큼의 발표 조로 편성한 뒤 매 수업 시간에 배운 방법론을 실제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나온 결과를 조별 협동 학습을 통하여 다음 수업 시간에 발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학습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기 초에 설문지를 통해 수업에 관계되는 사항 전반, 즉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 방법과 발제 방식 등 수업을 구성하는 여러 사항에 관한 선호도를 조사한 뒤, 가능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방식대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학기 말에는 또 다른 설문 조사를 통해 선호하는 방식대로 진행한 수업의 형식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협동 학습을 통한 조별 발제 수업의 설계

가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수업과 학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대학의 수업 과정에서 피동적인 태도로 협동 학습에 의한 발제 준비나 조별 모임에 협조하지 않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며, 학생 간의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에 대한 변화 과정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합당한 구체적인 교수법과 개선점을 설계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 References

- [1] S. U. Seol. "Study on Educational Culture of Education-Oriented Engineering Universit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8, No. 6, pp. 275-283, 2022.
- [2] W. K. Nho. Learning Strategies Using Rubric design of a good class, 10, 133-153. 2009.
- [3] H. S. Kim. "Effects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on College Student Outcomes and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9, No. 4, pp. 875-877, 2005.
- [4] A. C. Park. "The Effects of Jigsaw cooperative learning model on communication competence of pre-service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 1009-1027. 2019.
- [5] Kagen, S. and Kagen, M. Multiple intelligences: The complete mini book series. San Clemente, CA: Kagan Cooperative Learning. 1998.
- [6] D'Zurilla, T. J. and Nezu, A. M. Social problem solving in adults. New York: Academic Press. 1982.
- [7] A. W. Astin.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Jossey-Bass, 1993.
- [8] S. H. Bae. and J. I. Hong.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the Growth of Active, Collaborative Student Engagement and Student-Faculty Interaction Between-Institution Effec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53, No. 4, pp. 159-192, 2015.
- [9] S. G. Kim. "Diversity and Integration: for the Science of Erudition," The Journal of Future Education, Vol. 2, No. 3, pp. 1-8, 2012.
- [10] S. I. Han, H. J. Kim, and J. Y. Lee, "A Study of Teaching Performance of Professors for Improving Teaching Quality in Universiti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27, No. 2, pp. 233-255, 2009.
- [11] I. J. Yu, "Seminar for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universities,"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No. 19, pp. 88-94, 1987.
- [12] S. K. Jeon. "Educational effect of activating learner questions in lecture-style class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Education, Vol. 29, No. 2, pp. 203-220, 2010.
- [13] J. H. Sung, and Y. S. Jung. "Educational effect of activating questions in Cooperative-style classes," Journal of the Research in Education, Vol. 31, No. 2, pp. 145-173, 2018.
- [14] E. T. Pascarella. and P. T. Terenzine. "Student-faculty and student-peer relationships as mediators of the structural effects of undergraduate residence arrang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73, No. 6, pp. 344-353, 1980.
- [15] E. S. Choi, and N. J. Park. "An Educational Program against Digital Drama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 10, No. 1, pp. 36-41, March 2022.